

“‘無’ 모든 망상 물리치는 화두”



45 무(無)

오늘날 화두를 참구하는 이들을 본다면 대부분 '무자화두'를 참구합니다. '간시궐' '마삼근' 등 여러 화두가 있지만 무자화두 일변도로 흐르게 된 것은 간화선을 만든 대혜 선사(1089~1163)의 영향입니다. 그는 "이 무자야말로 모든 망상을 물리치

가리킵니다. '옳다 그르다' 또는 '좋다 나쁘다' 등 흑백 논리로 따지는 마음, a와 b로 2등분해 차별, 분별하는 마음을 '업식성' '중생심'이라고 합니다.

현실적 이념적으로 모든 사고와 대상을 차별, 분별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어느 하나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은 중생의 마음으로서 괴로움과 번민을 낳습니다. 따라서 집착은 깨달은 자의 마음, 선의 마음(禪心)이 아닙니다. 깨달은 자의 마음은 차별과 분별, 그리고 집착을 떠나서 일체를 하나로 보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조주 선사는 왜 수행승에게 '없다(無)'고 한 것일까? 조주 선사가 '없다(無)'고 한 것은, 그대가 만일 깨(悟)가 미물이라고 해 '불성이 없을 것이다' 또는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차별·분별한다면, 그것은 결국 어리석은 중생심으로서 깨

개 미물로 여겨 불성 있다 없다 차별하면 깨달을 수 없어 깨달은 자의 마음은 차별·분별·집착 떠나 일체를 하나로

는 화두 '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무자화두를 둘러싼 선문답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승이 참선을 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일체 중생에게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佛性)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개 같은 동물에게도 불성이 있을까?" 그래서 그는 당대의 유명한 선승 조주 선사(趙州, 778-897)를 찾아갔습니다. "선사, 개 같은 동물에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佛性)이 있습니까?" "무(無, 없다)." "위로는 부처님을 비롯해 아래로는 하층은 벌레까지도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佛性)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개에게는 없습니까?" "그것은 업식(業識=중생심, 분별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있다' '없다'는 분별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별심은 '망상'이며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주 선사는 '무(無)' 한 글자로 모든 번뇌 망상과 분별의식을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젊은 수행승이 조주 선사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고 물을 때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체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고 했지만, 과연 개 같은 동물에게도 '불성' '부처의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이 있을까? 그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당대의 고승과 일전을 벌여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선승 사이의 문답은 비록 짧막하게 끝난 것 같지만 조주와 수행승과의 대화는 매우 평범한 논쟁에 가깝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을 라이프로 볼 수 있다면 매우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물론 그 수행승은 훗날 조주 선사의 '무(無)'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미물을 포함한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佛性)을 갖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말은 대승 <열반경> '사자후품'에 있는 말입니다. 모두 다 불성을 갖고 있다면 사림은 물론이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바탕, 속성, 인자(因子)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젊은 수행승은 교학적 사상적으로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주 선사의 답은 의외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수행승은 다시 "일체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개에게는 없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조주 선사는 "개에게 업식성(業識性=중생심, 분별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먼저 '업식성'이란 무엇인지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업식성'이란 중생심으로서 차별·분별의식을

독자 여러분, 화제를 좀 둘러서 어리석은 중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제는 역시 개 같은 동물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성품' '부처의 마음'이 있을까? 그것입니다. 개의 몸, 개의 지능 지수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골 형님 집에 12년 된 명명이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녀석도 우리가 가면 주인 집 동생이라고 꼬리를 흔들면서 매우 반가워합니다. 멀리서 이불만 불러도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런데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준비를 하던 시큰둥해합니다. "진도 잘 있어"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물끄러미 먼 산을 쳐다 보며 애써 태연한 척 합니다. 개에게도 고독, 이별의 감정 같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도 할까? 불성이 있을까? ■윤창화 민족사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생사윤회 면하려면 탐욕 끊고 애정 없애야

45 앓다까지

<장로니계(長老尼偈)>에 등장하는 71명의 '깨달은 비구니' 가운데는 원래 유녀(遊女: 성매매 여성)였던 앓다까지, 아바이마타, 비말라, 암바파라라 불리우는 장로니 4명에 대한 기록이 보일 정도로 당시에 이미 성매매가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네 분 가운데 미모가 출중하고 유명한 장로니는 앓다까지(Addhakasi)였다. <장로니계>에 따르면, 앓다까지는 가섭부처님 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결혼 적령기가 됐을 때 비구니 가까이 가서 법문을 들었고, 믿음을 얻어 출가했다. 그런데 그녀는 계(戒)를 확고히 지키며 분석적인 통찰을 성취하고 번뇌를 멸한 한 장로니를 유녀란 말로 비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뽐내온 아름다운 얼굴, 이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자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자체가 저주스러웠다. 작심한 그녀는 어느 날 동료에게 자신의 뜻을 고백했다.

"나는 부처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어." 동료는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당황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녀가 출가한다는 소문은 삼시간에 나라에 퍼졌다. 그녀가 모든 재산을 버리고 출가하기 위해 나서려는

레 웃으며 말했다. "염려마라. 다른 비구니가 나를 대신해 앓다까지에게 구족계를 주리라."

부처님께서는 한 비구니를 대신 그녀에게 보내 수계하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대리로 구족계를 준 최초의 예가 됐다. 비구니가 된 앓다까지는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머지 않아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앓다까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혐오하면서, 이 육신은 괴롭고 정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관(觀)하면서 그 이후에 탐욕에서 벗어났다. 여기서 혐오감을 획득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며,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원각경>에서 '윤회의 근원과 그것을 끊는 방법'을 논

부처님 대리에게 구족계 받은 최초의 비구니 장로니 비방한 전생 과보로 고급유녀로 환생

날, 동료들이 물려와서 말했다. "지금 곳곳에 청년들이 숨어서 네가 지나가면 습격하려 한다는 소문이 짝 퍼졌어."

실제로, 평소 그녀를 사모하던 청년들이 그녀가 지나가는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라자가하에서 부처님이 머물고 계시는 사벳타(舍衛城)까지 가려면 거의 2개월이나 걸려 그녀는 선뜻 나설 수가 없었다. "출가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육신을 깨끗하게 지켜왔는데 남자에게 다시 욕을 당한다면 나는 영원히 출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든 그녀는 할 수 없이 심부름꾼을 보내 부처님께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아뢰고 도움을 청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듯 빙그

는 미루보살에게 이렇게 방문하셨다. "모든 중생에게는 시작 없는 옛적부터 갖가지 은애와 애정 탐심과 음욕이 있기 때문에 생사에 윤회한다. ... 음욕으로 인해 마음에 갖가지 거스름이 생기며, 그 대상이 사랑의 마음을 거스르면 그 만 미움과 질투를 내어 갖가지 업을 짓는다. 여기서 지옥과 아귀가 생기는 것이다. 중생이 생사의 윤회를 면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정의 목마름을 없애야 한다."

수행자들은 자신의 공부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가를 점검하려면, 갈애(渴愛)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스스로 점검할 일이다. 자신을 속이며 무애가(無礙歌)를 부른다면 숨넘어갈 때는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 위빠사나 집중수행 및 자애관 수행**=서울 보리수 선원이 12월 위빠사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집중수행은 12월 20~27일, 기본 수행은 22~27일 직장인과 학생을 상대로 오전반(10:00~12:30)과 저녁반(19:30~21:30)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자애관 수행은 12월 21일, 성탄절 특별 집중수행은 12월 25~28일 실시한다. 참가비는 집중수행 10만원, 기본수행·성탄절 특별 집중수행 5만원, 자애관 수행 1만원으로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2)517-2541
- 삼보일배 대정진**=평창 월정사는 12월 31일~2009

- 년 1월 1일 삼보일배 대정진을 실시한다. 31일 신중기도를 시작으로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삼보일배 하고 상원사 범종루에서 새해맞이 타종식 행사에 참여한다. 동참금은 자유부시. (033)332-6661
-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서울 보림선원은 12월 30일~2009년 1월 5일 보림사 선방에서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한다. 보림선원 조실 목산 스님이 백봉선생 육성법문과 <금강경> <유마경> 등을 지도하며 참가비는 9만원이다. 010-6332-4096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환주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환문의 상담 환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무선마이크 무료보시 합니다!

2008년 12월 ~ 2009년 1월 중 앰프, 스피커 설치 사찰에 한함

DX-707 스탠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高音質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소리공양 종목**◆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 함유를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